

A!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한누 세리스티
핀란드 알토대 부총장



김태현 aSSIST 총장



국내 최고 해외복수학위 MBA, 핀란드 알토대 EMBA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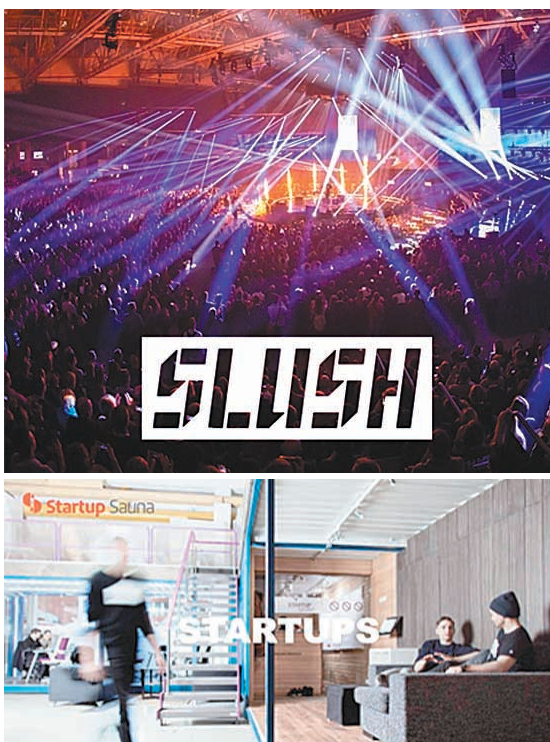
융합-혁신교육 강점 4차 산업혁명 창조인재 양성 ‘주춧돌’

교육생 전원 석사학위-현업 병행 가능
온-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최대 강점
국내 졸업생 4109명 동문 네트워크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꼽히는 북유럽의 핀란드는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와 인구 대비 대기업 수가 한국과 유사하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석권했던 대표기업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핀란드는 ‘유럽의 병자’로 불릴 만큼 경기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혁신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지금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칭해지고 있다.

놀라운 성장의 핵심에는 특유의 교육시스템이 있다. 특히 핀란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교육 융합과 혁신의 대명사 알토(Aalto)대학교가 대표적이다. 알토대는 핀란드의 경제 문화 산업을 선도한 헬싱키 경제대, 헬싱키 디자인예술대, 헬싱키 공과대를 통합한 학교다. 세계적 경영 전문 저널 ‘하버드 비즈니스리뷰(HBR)’는 알토대를 새로운 교육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혁신은 다양한 학문 간 교차에서 태어난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산업구조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이끌 인력을 양성해 핀란드의 대표적 액셀러레이터로 꼽히는 ‘스타트업 사우나’와 유럽 최대 창업 콘퍼런스인 ‘슬러시(SLUSH)’가 알토대 창업 동아리를 통



해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전 세계 8개 캠퍼스와 교류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알토대 ‘EMBA in Seoul’ 과정

은 주목할 만하다.

알토대 EMBA in Seoul 과정은 aSSIST(서울과 학종대학원대학교·총장 김태현) 경영전문대학원이 알토대와 손잡고 운영한다. 국내의 많은 EMBA(Executive MBA) 가운데 교육생 전원이 알토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학위 취득 기간 1년 6개월(3학기)은 국내 MBA 과정 중 가장 짧다. 7월 말 여름휴가를 이용해 핀란드 현지에서 2주간 교육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알토대 EMBA in Seoul 과정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경영대학을 인증하는 ‘AACSB’ ‘EQUIS’ ‘AMBA’ 등 3대 인증을 모두 획득한 ‘트리플 크라운’ MBA다. 트리플 크라운 경영대학은 전 세계 경영대학의 0.5%인 95개교뿐이다. 국내에서는 EMBA in Seoul이 유일하다.

EMBA in Seoul은 분야별로 최고의 석학을 초빙해 강의하는 알토대 본교의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운영하고 있어 국내외 최고 교수진이 강의 콘텐츠를 구성한다. 동문인 전민아 콘텐탈코리아 이사는 “알토대 EMBA는 국내외의 저명한 교수진의 강의를 학생들이 평가해 다음 학기 수업 결정에 적극 반영한다”며 “오랫동안 학생들의 검증과 신뢰를 받은 교수님들에게 배운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수한 학점은 알토대 본교 학위 취득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이 주말에만 진행돼 시간 여유가 없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한국어 및 영어 혼용반과 100% 영어반을 선택할 수 있다. 강남과 강북 캠퍼스가 동시 개설돼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글로벌 EMBA 프로그램으로 졸업생은 올 2월 기준 4109명이다. 핀란드 싱가포르 대만 이란 폴란드 등의 졸업생을 합치면 동문 네트워크는 1만5000명을 헤아린다. 국내 단일 MBA 과정으로는 최대 규모의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최근 구글 아마존 듀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아모레퍼시픽 쿠팡 등 국내 대표 기업과 KOTRA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도 입학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권봉석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채은미 페덱스코리아 대표, 전승호 대우제약 대표 등이 졸업생이다.

현재 가을학기(9월 시작)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직장인은 유선 및 온라인 입학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전형별로 합격자에게 특별 입학 장학금이 제공된다. 원서 접수 및 입학 문의는 홈페이지(aalto.assist.ac.kr)나 전화(02-360-0721, 0730)로 하면 된다.

알토대 EMBA 졸업생 박진오 교수 인터뷰

“현업 유지하며 학위 취득해 美서 빠르게 자리 잡는데 도움”

디자이너 박진오 씨(37·사진)는 알토대 EMBA 프로그램 18기 졸업생이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회사 EJ C&D에서 기업 문화와 브랜드를 공간에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2012년 알토대 EMBA 과정에 들어섰다. 현재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르치며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공간을 연구하고 있다. 올가을부터 아칸소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게 된 그에게서 알토대 EMBA 과정의 경험과 소회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장을 다니면서 MBA 과정을 밟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직장에서 경력이 쌓이면서 디자인 비(非)전문가인 클라이언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또 미학적으로 훌륭한 결과물들이 시장에서 저조한 성과를 내는 것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는 물론이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반년 정도 검색한 끝에 알토대 EMBA를 선택했다.”

—왜 알토대 EMBA 과정이었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짧은 수업 기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현업과 병행할 수 있는 스케줄이 큰 장점이었다. 다른 많은 졸업생들이 인터넷에 올

린 글들을 읽으며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현업 디자이너로서 MBA를 한다는 것이 당시로는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로서 MBA취득 어렵지만
검색 통해 경영언어 배울기회 잡아
졸업 후 얻는 내적 보상 작지 않아

배움 열정 강한 후배직장인 응원
자신의 가치 증명할 기회 얻기를

—알토대 EMBA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만 소개한다면...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과정을 완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빨리 무사히 졸업하기만을 바랐던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졸업하고 얻는 내적 성취감과 외적 보상이 작지 않았다. 일반 석사 과정보다 빠르고, 영어에 노출되는 학위를 취득하니 미국에 유학 와서 자리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경력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됐던 점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디자인의 가치를 경제적 성과로 해석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비즈니스 톨을 활용해 디자인을 개념화하고, 디자인의 가치를 수익으로 평가하는 결과물을 내는 일은 미국에서조차 흔한 능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알토대 EMBA 프로그램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 경영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비즈니스 톨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켜준다.”

—입학 전후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무엇인가.

“삶의 터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직무도 실무자(Practitioner)에서 교수(Faculty)로 전환된 것이다. 학교에 있어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개인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디자인 실무도 한다.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업무 스케일이 커진 것이 현재 제 연구와 실무의 특징이다. 건강한

실내 공간 수준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월마트 신(新)사육과 지역사회의 관계 연구를 준비하는 등 그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알토대 EMBA 수학생에게 조언한다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아버지 세대와 달리 요즘은 입사 후에도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압박에 놓여 있다. 의지를 갖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응원한다. 어떤 분야에 있든 경제적 지표를 활용해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혹은 앞으로 얻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알토대 EMBA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알토대 EMBA 진학을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한마디...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하시리라 생각한다. 나를 비롯한 많은 졸업생의 사례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비즈니스 언어를 배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

